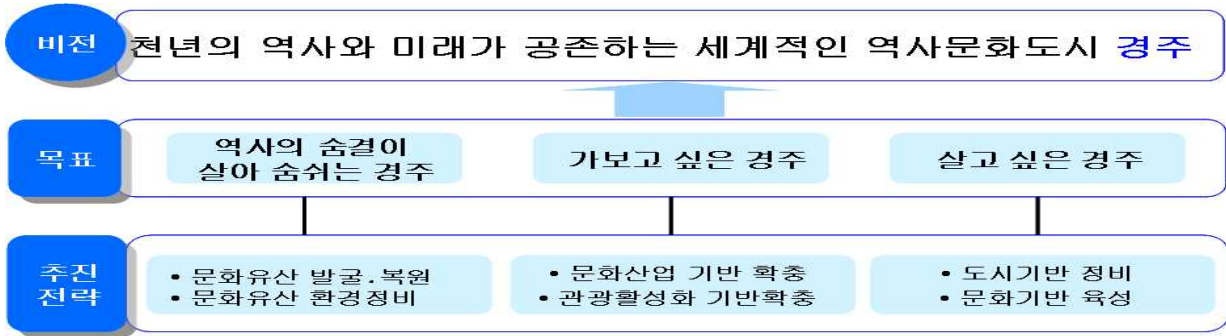


역사·전통문화도시별 성과 및 과제

1 경주 역사문화도시

□ 사업 개요 (2006~2035)



□ 주요 성과

- (관광객 증가) 역사도시 사업의 추진으로 '12년에 11,737천명의 관광객 방문
- (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강화) 신라궁궐 월성 인근인 동부사적지내의 화원조성, '삼릉 가는길' '동남산 가는길' 과 같은 신라탐방길 조성 및 유적지간의 보행로 개선 사업 등 완료
- (관광서비스 개선) 참여와 현장 체험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 IT기술을 이용한 U-관광서비스 체계 구축



안압지 야경

황룡사 마루길

관광안내시스템 구축

전통혼례(향교)

- (교촌한옥마을 개관) 12대 400년 만석꾼 가문의 생활현장을 교육·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전통한옥마을 조성('13년 상반기 개관)
 - 전통찻집, 전통요리 및 전통문화 체험시설, 토기공방 및 가마, 특산물 판매장 등 문화체험시설과 교육공익시설로 경주최부자 아카데미, 교촌 홍보관 등 교육공익시설 운영
 - 인근 월정교, 월성, 향교, 계림, 동부사적지대 등의 유적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매력 극대화

- (월정교 개통 등) 신라천년 궁성과 왕경의 연결 통로로 누교 부분을 완성하고 금년 개통 예정이며, 황룡사 복원을 위한 황룡사 연구센터 올해 착공



교촌한옥마을 전경



월정교 야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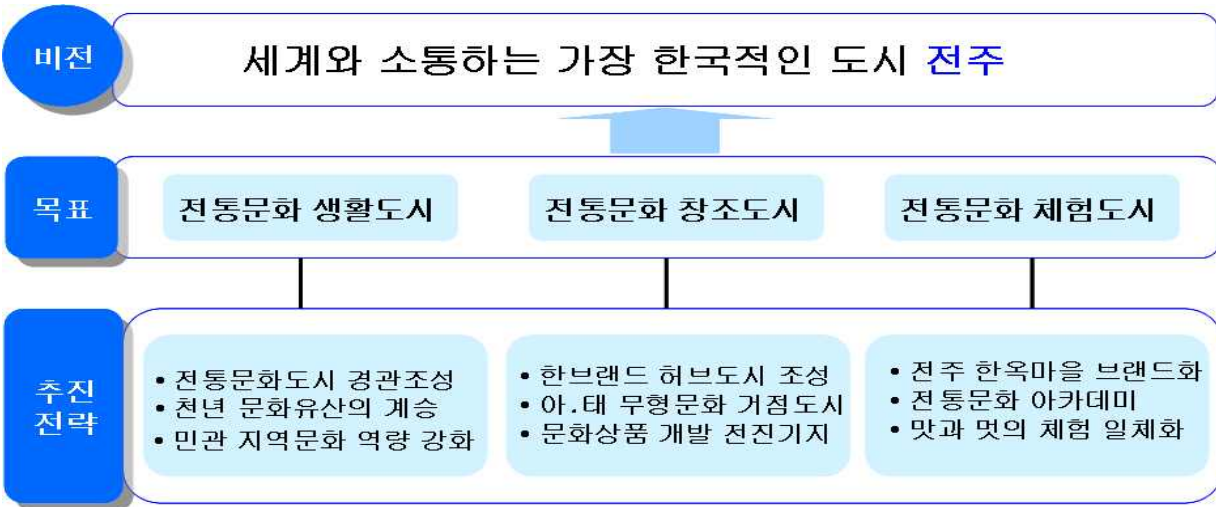


황룡사 연구센터 조감도

□ 향후 과제


- (2단계 사업 추진)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반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사업 발굴 등 명실상부한 인간과 프로그램 중심의 역사문화도시 사업 발굴 필요
- (경주역사문화관 건립) 건립 단계 이전에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전시 내용,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
- (한옥지구 보존정비) 한옥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, 전통 한옥의 보존·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경주역사문화 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한옥마을 조성

□ 사업 개요 (2006~2035)



□ 주요 성과

- (전통과 현대의 조화) 전주 전통문화의 대표적 브랜드인 천년전주명품 ‘온’ 개발로 전통장인 무형문화재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이너 간 협업으로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현대적·미래적 가치 확산
- (‘한국전통문화의 전당’ 준공 등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) ‘한국전통문화의 전당’이 ‘13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, 전통문화창조센터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거점 공간으로 육성정
 - 부채, 소리, 완판본의 전승과 계승발전을 위한 ‘3대 문화관’ 개관, 전통문화연수원 개원, 어진박물관 개관, 한지산업지원센터 개관, 국악방송국 개국 및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중

기반시설	기관 소개	
한국전통문화의 전당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관 : 2013. 하반기 개관 예정 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-2 - 규모 : 연면적 17,102㎡ / 지하1층 지상5층 - 기능 : 전통문화 연구, 교육, 전시, 체험, 판매

3대문화관 (부채, 소리, 완판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관 : 2011. 10월 개관 - 위치 : 한옥마을 내 3개소 - 규모 : 지하1층 지상1층 - 기능 : 전시 및 체험(부채, 목판, 소리 배우기 등)
전통문화연수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관 : 2011. 4월 개관 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-6 - 규모 : 동헌, 장현식 고택, 진참봉 고택 - 기능 : 선비문화 전통문화연수 및 한옥숙박체험
한지산업지원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관 : 2010. 9월 개관 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- 규모 : 연면적 3,533㎡ / 지하1층 지상4층 - 기능 : 한지산업 R&D, 기업지원, 전문인력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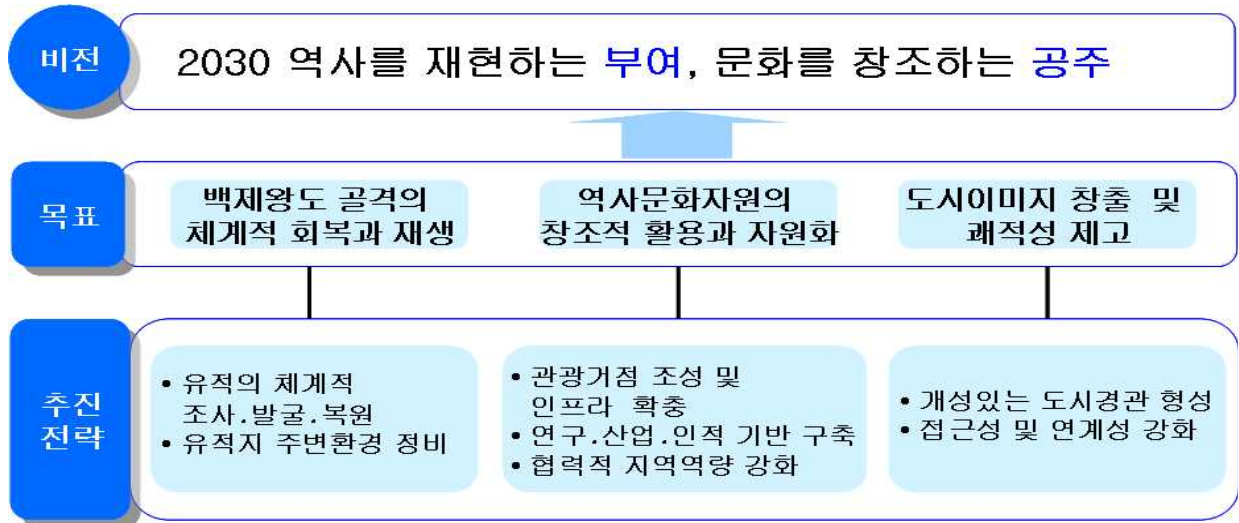
- (전주한옥마을) 원도심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개발한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로, ‘12년 31만명이던 관광객 수가 금년 500만명 예상 * ‘12년 한옥마을 관광객 : 4,932천명



□ 향후 과제

- (콘텐츠 개발 및 운영) 한식, 한옥, 한지, 한국음악, 공예, 한방, 서화, 기록문화, 종교문화, 역사문화, 축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
 - 개관예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용,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 육성,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등
- (소통과 재창조를 통한 전통문화도시 정체성과 대중성의 조화) 대중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, 전시,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전통문화의 일상 저변 확대
 - 전통문화도시로서 한국적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, 전통문화 유관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활성화,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문화도시 위상 제고

□ 사업 개요 (2009~20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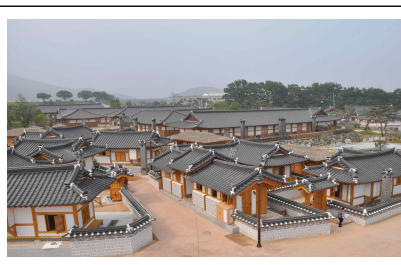


□ 주요 성과

- (역사문화도시 이미지 복원) 웅진 문화의 길 조성, 궁남로(주작대로) 조성 등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개선, 공산성, 정림사지 등 유적 및 역사 환경지구 정비 등 역사문화유산자원의 활용 및 관광진흥 기반시설 확충
 -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, 공주 전통 한옥숙박촌 조성,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
 - '08년 811만명(공주 350, 부여 461)이던 관광객 수가 매년 10%씩 증가하여 '12년 997만명으로 '관광객 1천만 시대' 도래



부여 -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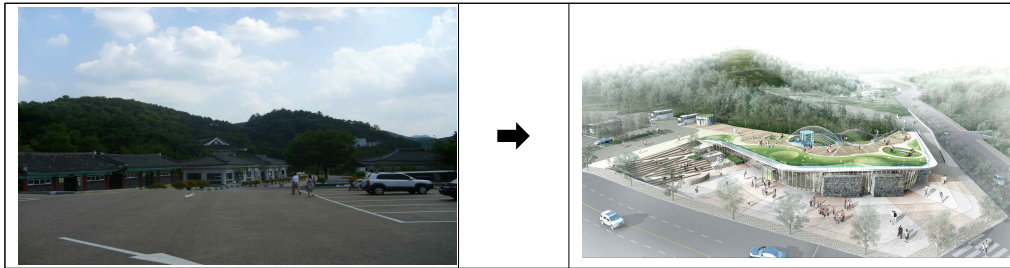


공주 - 전통한옥숙박촌 조성



공주 - 웅진 문화의 길 조성

- (무령왕릉 등 유적지 관람환경 개선) 송산리고분군 자연경관 복원 및 송산리고분군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응진백제역사문화관(가칭)을 신축 중('13.6월 개관 예정)



공주 - 무령왕릉 입구
(자연경관을 해치는 기존 건물)

공주 - 무령왕릉 입구 정비 조감도

- (궁남로 및 성왕로 등 ‘백제길’ 특화거리 조성) 석탑로(주작대로)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느껴지는 ‘건고 싶은 거리’ 로 조성

- 부여의 진입로인 성왕로 정비사업 추진중



부여 - 정림사지 돌담길 산책로 조성

부여 - 백제 시간의 거리 조성

부여 - 성왕로 정비사업 조감도

□ 향후 과제

- (백제역사문화권 사업의 체계적 추진) 공주·부여를 비롯한 익산 등 백제 고도간 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적·체계적 백제역사문화도시 사업 추진
- (추진체계 정비) 핵심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시민들과 소통